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방법

송 방 송

〈영남대 음대 교수〉

《차 례》

- | | |
|----------------------|--------------------------|
| 1. 머리 말 | 4.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
| 2.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 5. 맺는 말 |
| 3.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 |

1. 머리 말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남북분단의 극복과 민족화합의 성취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시대적 과제는 근대사의 잘못된 시작으로 인하여 나라와 주권이 빼앗겼던 일제시대에 잃어버렸던 문화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일제총독의 왜곡된 문화정책이 우리민족과 지성들에게 심어준 민족적 열등의식은⁽¹⁾ 외래문화의 자주적 수용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오늘날의 민족지성들에게 부과된 시대적 과제는 잃었던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래음악의 자주적 수용 및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 이상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에 사는 음악지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는 새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정립하는 일로 요약된다는 말이다. 우리민족음악의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온 학문이 바로 한국음악학이라고 하겠으며, 음악사학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음악학의 한 갈래라고 하겠다.

이번에 서울대음대 동양음악연구소의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해방 이후 음악지성들이 우리민족음악의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연구해왔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1) 日帝植民地時代 韓國의 知性들이 신교육제도에 의한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음으로써 민족적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든 停滯性 이론과 他律性 이론에 근거를 둔 植民史觀에 대하여 拙稿 “80년대 韓國音樂史 연구의 회고와 전망,” 『예술과 비평』(서울: 서울신문사, 1986), 통권 제11호(가을호), pp. 272-89. 참조.

과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일은 한국음악학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한국음악사학의 방법이라는 제목은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말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라는 방법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달성의 수단인 방법은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즉 여행자의 목적지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이르는 교통 수단인 방법이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듯이, 연구방법은 왜 연구해야 하는가를 묻는 연구목적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야 순서인 셈이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통해서 학문의 목적의식을 뚜렷이 하는 일 및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 이상 두 가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음악사학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논의를 쉽게 이해하려면, 음악사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한국음악사학이라는 학문의 목적과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그 학문의 전체적인 조감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음악의 문제를 시간 개념의 차원인 통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인 음악사학은 독일의 *historische musikwissenschaft*를 번역한 영어의 *historical musicology*를 번역한 말인데, 가끔 음악역사학 또는 역사적 음악학으로 번역되기도 한다.⁽²⁾ 음악학의 한 갈래인 음악사학은 공간 개념의 차원인 공시적 관점에서 음악의 문제를 다루는 민족음악학·음악사회학·음악교육학·음악미학·음악심리학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음악학 또는 음악이론학(*systematische musikwissenschaft, systematic musicology*)과 구분된다. 음악사학은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그 학문이 음악학의 한 갈래임과 동시에 역사학의 한 특수 갈래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음악사학의 학문적 성격은 한국음악학의 한 갈래이자 한국

(2) *Historical musicology*를 音樂史學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歷史的 音樂學이라고 直譯한 실례는 서우석 옮김(글렌 헤이든 지음)『음악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운애, 1981)에서 발견됨. 필자는 美術史學·經濟史學·社會史學의 경우처럼 *historical musicology*를 音樂史學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韓國音樂史學은 *Korean Historico-Musicology* 또는 *Korean Historical Musicology*로 英譯될 수 있고, 또 *Koreanische historische musikwissenschaft* 또는 *Koreanische Historische Musikforschung*으로 獨譯될 수 있음. 拙稿, "Present State of Research o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World of Music* (Berl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mparative Music Studies, 1985), Vol. XXVII, No.2, pp.63-77; "Musikwissenschaft in Korea seit 1950," *Acta Musicologica* (Kassel: International Gesellschaft für Musikwissenschaft, 1985), Vol. LVII, No. 2, pp.141-51. 참조.

사학의 한 특수 갈래로 이해하면 쉽다.

음악사학이 역사학의 한 특수 갈래로 포괄하기에는 음악이라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음악의 역사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미술사나 문학사처럼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음악학에 포함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보는 바이다. 고분벽화나 석탑 등의 고고학자료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자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특수하며, 여러가지 기보법으로 적은 고악보에 담긴 악곡의 음악양식에 대한 해독과 분석연구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과제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므로, 악기나 악보에 관한 연구는 음악사학자의 전문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음악사학이 역사학의 한 특수 갈래로 포함될 수 없고 음악학의 한 갈래로 끼는 이유가 이러한 학문적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음악사학이 어째서 필요한가라는 학문적 효율성은 대략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다.⁽³⁾

음악사학의 성격은 대체로 세가지 각도에서 규정될 수 있으니, 그 첫째는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문제를 바르게 파악케 도와 준다는 관점에서 학문적 성격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음악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역사적인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주는 학문이 바로 음악사학이라는 말이다. 음악사학은 음악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자극해 주고 또 합리적인 추리능력을 세련시켜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악문제에 관한 학문적 회의와 비판정신을 배양시키고, 앞으로 내다보는 선견이나 역사적 안목을 그 학문이 길러준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음악더 나아가 세계의 음악에 대한 역사적 사고능력과 인식 능력을 길러주는 음악사학이 이 시대의 음악교양인이나 음악전문가의 기본적인 학문이어야 하는 까닭을 여기서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사학은 역사학이나 사회학의 여러 학문처럼 객관성 있는 비판의 기술과 합리적인 추론을 훈련시키는 학문이므로, 그 학문을 통하여 음악인들은 음악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전진한 판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판단력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양되고, 올바른 질문은 학문적으로 세련된 상상력과 추리력에 달려 있다. 음악사연구에서 필수적인 음악사료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거나 또 새로운 자료들이 음악사적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언제든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음악사연구는 중단되거나 연구거리가 메말라 버리지 않는다. 이렇듯 음악사연구에

(3) 『音樂史의 學問的 효율성에 대한 글은 정경현 역(로버트 V. 다니엘스 지음)『역사학입문』(서울: 지식 산업사, 1983)을 읽고서 쓴 拙稿, “音樂史學이라는 學問,” 『嶺音』(慶山: 嶺南大學校 音大學生會, 1986), 第3輯 pp.18-29을 요약한 것임을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임.

서 끊임없이 배우는 학문적 의문이나 건전한 회의는 훌륭한 판단력의 형성과 배양에 필수적이므로, 음악사학의 성격은 이러한 두번째의 각도에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미래에 전개될 음악사의 방향을 내다보는 일은 지난날의 역사적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신들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역사의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도자 뿐 아니라 오늘의 음악담당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한 나라의 음악문화를 이끌어 갈 주체세력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앞으로 전개될 음악사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음악담당자의 역사적 위치를 올바르게 깨우쳐 주는 역사의식이 음악사연구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사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러한 세번째의 각도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음악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음악사학이 역사학의 한 특수 갈래임이 분명하나 음악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음악학의 한 갈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음악사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음악문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우리들의 건전한 사고 능력과 비판능력을 증진시켜 주며, 미래의 음악문화에 대한 건실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학문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문을 현재의 음악담당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계를 이끌고 갈 젊은 음악도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필수과목의 하나인 까닭이 바로 이런데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3.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음악사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음악문제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건전한 사고 능력에 의해서 추구할 미래의 음악문화에 대한 건실한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학문이라고 앞서 요약하였다. 현대에 사는 우리민족의 음악문제가 현재 음악대학에서 개설된 음악사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파악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살핌으로써,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한국음악사학의 목적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⁴⁾

음악사라는 개설서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따지는 마당에서 음악 일반이 개설서에

(4) 音樂史의 개설서에 관한 필자의 논의는 문학개론에 관한 조동일 지음, 『문학연구방법』(서울: 지식 산업사, 1980), pp.9-46의 “이 책은 왜 필요한가”라는 글을 읽고서 참조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임.

포함되어야 당연하다는데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음악 일반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음악 일반은 각국 음악의 총체로서의 음악과 어느 나라의 음악을 통해서 본 음악 일반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총체로서의 음악 일반은 서양 각국의 음악은 물론이고 동양 각국의 음악과 아프리카 각국의 음악 및 남북아메리카 각국의 음악 등을 끌고루 포함해야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음악 일반을 다룬 음악사 개설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고, 다만 유네스코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간의 삶속에서의 음악”(Music in the Life of Man)이라는 거창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⁵⁾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라도 서양 각국의 음악 중 몇 나라 정도와 동양 각국의 음악 중 한국·중국·일본·인도 정도를 포괄해서 음악 일반을 다룬 개설서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⁶⁾ 지금까지 나온 음악 개설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음악 일반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한 나라 또는 몇 나라의 음악을 통해 본 음악 일반일 뿐이다.

어느 나라를 통해 본 음악 일반을 다룬 개설서의 사정은 어떠한가를 개관해보면 대략 이러하다. 실제로 음악사 개설서는 서양음악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영국·불란서·독일·이태리 정도의 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⁷⁾ 기존 음악사가 서양음악을 주로 다루는 까닭은 서양이 곧 세계라고 믿었던 19세기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서양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결과, 음악을 말하는 경우에 서양음악이 곧 세계음악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음악을 말해야 음악 일반을 안다고 자부하게 되었고, 동양음악이나 한국음악을 언급하면 음악의 특수성 밖에 모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음악사도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식의

- (5) 아시아·오세아니아·아프리카·아랍지역·유럽·북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의 음악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Music in the Life of Man*(『世界音樂史』)이라는 연구계획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위원회(MLM Regional Committee: Asia and Oceania)에 참석하고 발표한 필자의 보고서 “『世界音樂史』의 編纂作業 現況: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 심포지움> 참가報告,” 『예술과 비평』(서울: 서울신문사, 1985), 여름호, pp. 74-92. 참조.
- (6) 동양음악을 다룬 英文版 개설서로 William P. Malm, *Music Cultures of the Pacific, the Near East, and Asia* (Seco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가 있고, 아시아 각국의 음악을 다룬 英文版 事典으로 Stanley Sadie가 편찬한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이 있으나, 한글판 동양음악 개설서는 없음. 다만 東洋音樂의 일반을 간략하게 소개한 李惠求의 “동양음악”이 『世界大百科事典』(서울: 太極出版社, 1973), 卷8(音樂), pp. 434-54에 소개된 바 있고, 필자의 “아시아 전통음악 순례”라는 글이 『音樂教育』(서울: 世光音樂出版社, 1989) 1월의 창간호부터 印度音樂·中國音樂·日本音樂의 순서로 11월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음.
- (7) 미국의 Cornell대학교의 音樂學 명예교수인 Donald Jay Grout가 지은 *A History of Western Music* (Revised Ed. New York: W.W. Norton & Co. Inc., 1973)이 그 대표적인 실례임. 이 개설서는 徐佑錫·文吳權 共譯, 『西洋音樂史』(서울: 秀文堂, 1977) 및 金晋均·羅仁容·李成三 共譯, 『西洋音樂史』(서울: 世光出版社, 1980)로 번역되었는데, 이 개설서는 현재 전국의 音樂大學 또는 音樂科의 音樂史 강좌에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서양음악사라는 개설서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음악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게 만들어 주고 또 미래의 한국음악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음악사를 연구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한 시대를 살다 가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가 사는 역사의 한 시대에 처한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가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악지도자로서 한국의 음악문화를 이끌어 가는 음악담당자들이 어떠한 공헌을 우리음악계에 남기고 갈것인가라는 문제는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역사의식에 입각하여 음악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이러한 각도에서 반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사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민족음악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음악문제와 미래에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방향모색이 과거의 올바른 인식없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음악문화와 관련된 지난 시대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었나라는 물음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이 어느 시대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말이다. 서론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제총독부의 왜곡된 문화정책이 우리민족과 지성들에게 심어준 민족적 열등의식이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음악분야에서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식에 어두웠던 우리세대가 극복해야 할 역사적 사명마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그러면 우리세대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차례이다.

흔히 “서양사람이 펴 놓은 멍석 위에서 그들의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 국적 불명의 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되는 우리사회에 깔린 수많은 음악문제의 뿌리는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와 해방을 거치는 한국근대음악사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구한말 정치적 주도세력이었던 개화인사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민족적 주체성을 갖지 못했고, 장악원의 악사들은 밀어닥치는 서양음악의 물결에 대처할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음악의 주체적 수용과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두가지의 역사적 과제는 다음 시대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우리민족과 지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역사적 과제가 민족독립과 국권회복으로 요약되듯이, 구한말 때 이루지 못했던 양악의 주체적 수용과 국악의 창조적 계승이 그 당시 음악지성들의 역사적 과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제의 정치적 탄압

은 민족사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일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총독부의 악랄한 문화정책은 우리민족과 지성들에게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재를 뿌림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일제가 민족적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던 결과로 인하여 우리민족과 지성들은 문화민족의 창조역량을 과소평가하기에 이르렀고, 서구 지향적인 사고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제총독부의 왜곡된 문화정책은 나라와 주권을 잃고 허둥대는 음악지성들에게 우리민족음악사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양악의 주체적 수용과 국악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다음 시대로 이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우리민족음악사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역사인식을 갖지 못했던 양악담당자들이 해방 이후 음악계를 주도해가면서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는 방향으로 우리 음악계를 유도한 것도 알고 보면 일제가 심어준 민족적 열등의식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⁸⁾ 한국근대사의 역경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민족의 문화적 독창성과 문화민족의 자주적 창조역량을 되찾게 되는 날이 일제가 남겨준 찌꺼기의 핵심인 민족적 열등의식을 청산하는 때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민족적 열등의식의 극복 없이 민족음악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음악담당자들에게 부과된 서양음악의 주체적 수용과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세대의 이러한 역사적 과제가 독일이나 미국음악인들이 대신 풀어줄 수 있다면야 문제는 간단한데, 음악인들을 포함한 한국민족 스스로가 극복해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음악사를 연구해야 하는 까닭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도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해방 이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보았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쓰라림을 체험하였다. 한국현대민족사의 연구가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던 분단시대의 극복을 위한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하듯이, 우리민족음악사의 연구도 국토통일과 민족화합 이후에 전개될 바람직한 한국음악의 모형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이다. 미래에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정통성은 지금의 음악담당자들에게 주어진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의 역사적 과제에 관하여 투철한 역사인식을 갖게될 때,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는 학문이 바로 음악사학이고 보면, 우리가 한국음악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

(8) 해방 이후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음악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韓國音樂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拙稿, “韓國音樂이란 무엇인가 : 그 개념정립을 위한 試論,” 『예술과 비평』(서울: 서울신문사, 1985), 겨울호, pp. 99-115의 글 참조.

유를 여기서도 찾은 셈이다.

2천여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음악문화의 주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한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의 독창성이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음악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역사적 관점에서 찾는데 기여할 것인 바, 한국음악사학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⁹⁾ 이렇듯 우리민족음악사의 학문적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찾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다. 바람직한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이 정립될 때, 서구음악문화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우리민족도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며, 잃어버렸던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모색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담당할 학문이 바로 한국음악사학이라고 할 때, 우리민족음악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이러한 각도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목적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네가지 이유를 거론하였다. 지금까지 음악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사라는 개설서가 서구 몇나라의 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개설서가 우리민족과 사회의 음악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음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낳게 하고 있는 딱한 음악교육계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지적되었다. 민족음악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금의 음악지성들에게 부과된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두가지 역사적 과제를 꼭 이루어야하는 시대적 사명이 두번째 이유로 꼽혔다. 세번째 이유는 국토와 민족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난 후 있어야 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정통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네번째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정립함으로써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공헌해야 하는 방향모색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제 한국음악사학의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연구해야하는가라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4.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국근대음악사의 전개과정에서 약소민족으로서 겪었던 민족적 수모와 비극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암담한 음악적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갖게되지 않았나 한다.

(9)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음악사의 역사적 흐름을 조감해 본拙著, 『韓國音樂通史』(서울:一潮閣, 1985) 참조.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일차적으로 국악담당자들에게 부과된 과업이라 하겠고, 양악담당자들의 역사적 과제는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음악담당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 지난날의 잘못을 파헤쳐 고쳐 나가고자 하는 노력없이 적당히 민족사의 시대적 과제를 덮어두고자 한다면, 그들이 이 민족음악사의 미래를 암담한 궁창으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가를 곰곰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거름 치도록 방관할 수 없다는 역사인식을 지니고 양악전공자나 국악전공자의 숨은 잠재능력까지 총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민족의 음악지성들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 한다.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러한 맥락에서 조명해 볼 때, 한국의 근대음악사연구와 현대음악사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한국음악사학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가 지난 봄 서울대음대 작곡과의 이론전공 교수들이 개최한 “개화기음악사”라는 심포지움이고,⁽¹⁰⁾ 또 “예술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를 밝힌다”라는 『객석』 8월호의 기획이⁽¹¹⁾ 아닌가 한다.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한 젊은 음악지성들이 제기한 한국근대음악사의 문제는 앞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양악사연구보다 비교적 오랜 연구사를 지닌 국악전공자들은 문헌과 고악보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결과 한국근대음악사와 현대음악사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하겠지만, 근대국악사연구나 현대국악사연구가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²⁾

- (10) 86년도 춘계 학술대회로 개최된 “개화기 음악사”는 1986년 4월 12일 서울대학교 음대 시청각실에서 발표했는데, 필자의 “한국근대음악사의 새로운 이해: 개항 이전의 음악적 상황을 중심으로,” 노동은의 “개화기 음악의 연구 상황,” 서우석의 “서양음악의 수용과정” 이상 세 편의 글이 발표됨. 서우석의 글은 『전통문화와 서양문화』(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5), pp. 173-209에 발표된 글에서 요약되었고, 필자의 글은 『民族文化論叢』(慶山: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1986), 第7輯, pp. 35-50에 발표되었고, 노동은의 글은 『연주계』(서울: 연주와 비평사, 1986), 8월호, pp. 104-118에 발표됨.
- (11) 순수음악 분야에서 노동은, “일본정신과 굴절된 음악인의 허위의식,” 대중음악 분야에서 서우석, “뽕짝가요보다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문제,” 연극분야에서 유민영, “여전히 살아 있는 일제시대의 악형,” 그리고 무용분야에서 박용구, “청산과 수렴후에 오는 대등한 입장” 이상 네 편의 글이 “예술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를 밝힌다”라는 특집기획으로 『객석』(서울: 주식회사 예음, 1985), 8월호, pp. 85-101에 발표됨.
- (12) 한국의 현대음악사연구나 근대음악사연구는 고대음악사연구나 중세음악사연구처럼 時代史연구의 한 분야라고 하였는데, 한국음악의 시대사연구는 한국음악사의 체계적 인식을 위하여 지름길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 時代史연구 뿐만 아니라 分類史연구도 한국음악사연구에서 주목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拙稿, “80년대 韓國音樂史 연구의 회고와 전망,” 『예술과 비평』(1986), 가을호, pp. 272-89 참조.

한국음악사의 어느 시대를 연구하던지 고루 적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서양음악사의 연구방법을 두루 포괄적으로 다룬 글이나 책도 없는 형편이다. 음악을 연구하는 방법이 서양음악이나 한국음악 그리고 다른 나라 음악연구에 고루 적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연구방법이 보편성을 가졌다고 한다. 연구방법의 보편성이 이상적 목표라 하더라도, 그 보편성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하겠다. 서양음악학자에게도 그들의 연구방법이 여러가지로 열려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대로의 길이 여러가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음악사를 연구하면서 생각해 본 연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두가지만 제시하고 그칠까 한다.

어느 음악사를 연구하더라도, 첫째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사료를 근거로 사실을 고증해야 하며, 셋째로 사실 고증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 세 연구단계를 거치게 마련이다. 사료의 정리는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음악사 연구의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학문적 기초작업이다. 더욱이 음악사료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나날이 인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료정리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료정리가 학문의 기초작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음악사 연구의 본론이라할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작업도 사료정리 못지 않게 중요한 학문의 기초연구이므로, 음악사연구에서 사료고증도 중요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사실고증이 학문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실고증작업이 음악사 연구의 노른자는 될 망정 썩눈은 아니라고 본다. 음악사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은 역사적 사실의 타당성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근거한 이론적 타당성에서 그 참뜻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의 하나 하나를 아무리 정확하게 밝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밝혀진 여러가지 사실의 총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따져야 올바른 역사연구라고 본다. 여러가지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따지는 작업이 바로 이론을 정립하는 일이다. 음악사연구의 이론정립은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의 역사적 의미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시대적 사명의 인식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정립은 반드시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의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 따라서 음악사의 연구방법도 학문의 이론정

(13) 논리·가치관·역사적 사명 이 세가지는 문학연구방법의원리로서 조동일의 『문학연구방법』, 35 쪽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필자는 그것을 음악사연구에 적용하여 시도하여 보았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임.

립을 위한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의식을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역사의 논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분별하여 인식하는 이치에서 얻어져야 하겠다.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사실이 가지는 의의를 가치라고 이해하면, 그 가치관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고증된 음악사의 어느 사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 우리 삶의 관련 속에서 얻어진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느 학문이건 간에 그 학문이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의의를 지닌다고 볼 때, 한국음악사 연구가 상아탑의 미명 아래 오늘의 음악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보며, 더우기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지적 도락에 빠져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망각한 음악사연구는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한 죽은 학문을 하는 것에 불과하겠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갈파한 말도⁽¹⁴⁾ 따지고 보면 현재의 역사적 사명의식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음악사학의 연구방법에 관련된 원칙이 그리하다 손치드라도 구체적으로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두가지 측면에서 전개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음악사연구는 음악양식 자체의 변천사연구에만 머무를 수 없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총체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¹⁵⁾ 총체적 접근방법이란 이웃 학문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음악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음악을 역동적 인간과 관련하여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동적 인간의 역사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서 생성된 한 갈래의 예술이 음악임을 인식하고, 음악사만을 따로 떼어서 연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의학에서 내과나 외과 그리고 안과나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가 사람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의학의 전체 속에서 한 특수 영

(14) 朴成壽, 『歷史學概論』(서울:三英社, 1977), p. 140. 韓國史연구에서 現在性を 강조한 姜萬吉의 “國史學의 現在性 不在問題,” 『韓國學報』(서울:一志社, 1976), 第5輯. pp. 132-43 또는 그의 史論集 『分斷時代의 歷史認識』(서울:창작과 비평사, 1978), pp. 38-50에 복간된 글 참조.

(15) 필자가 제시한 총체적 접근방법은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改正版. 서울:도서출판 통나무, 1986), pp. 21-103에 발표된 金容沃 교수의 “나의 良心宣言에 대한 氣哲學的 試論”을 읽고 알게 된 新科學研究會編, 『新科學運動』(서울:汎洋社出版部, 1986)이라는 책에 소개된 최근 自然科學界의 움직임에서 시사 받은 바 큼을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임. 즉 서양의 근대 合理主義 철학자로 추상되는 René Descartes(1596~1650)의 物心二元論의 철학과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Isaac Newton(1642~1727)의 力學理論이 이루어 놓은 서구의 근대 科學에 근거를 둔 기계론적 물질관과 세계관에 도전하여 20세기 초에 나타난 相對性 이론과 量子 이론은 有機體의 물질관과 全一的 세계관을 낳게 한 현대 物理學의 새로운 움직임에서 큰 시사를 얻게 되었음,

역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특수분야의 올바른 연구는 사람의 생명체에 관한 의학의 총체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음악문제에 대한 음악사학적 연구는 음악교육사적 견지에서도 조명되어야 하며, 음악사회학적 관점에서 뿐아니라 음악사상적 입장에서도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국고대음악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음악사학적 연구가 고고학의 연구방법과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없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음악학의 이웃학문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폭넓게 활용하고 수용해야만 한다는 총체적 접근방법이 음악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런데에서 찾아져야 하겠다.

둘째로 음악사연구는 입체적 연구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⁶⁾ 입체적 연구방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하나하나를 점으로 이해하려는 방법도 아니고, 사실과 사실을 이어서 단선적으로 연구하려는 방법도 아니며, 사실의 단선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시켜서 평면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방법도 아니다. 적어도 역사적 사실로 구성된 세계 이상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음악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선으로 구성된 평면의 전후와 좌우의 시간축과 평면과 평면 사이의 공간축을 두루 포괄하는 입체적 연구방법은 곧 구조적 연구방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가령 651년(진덕왕 5)에 신라의 음성서에 대사 2명을 두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이다.⁽¹⁷⁾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점으로 이해하려는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 다른 사실과 연결하여 선으로 이해하려는 다음 단계도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전후의 선과 좌우의 선을 이어 평면의 이해에 그치려는 연구방법도 지양되어야 하며, 그보다 한 단계 높게 평면의 집합체인 구조적 이해에 이르는 연구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음성서의 대사에 관한 역사적 의미를 찾는 작업은 점이나 선 또는 평면적인 연구방법에 의해서는 단편적인 이해라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므로, 시간축과 공간축을 고루 포괄하는 입체적 연구방법에 의해서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음악사연구에서 고악보 해독을 중심한 악곡의 비교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구방법이 어느 악곡과 관련된 사실고증의 한계에 머무를 수 없다고 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16) 필자가 제시한 입체적 연구방법에 관한 생각은 조동일의 『문학연구방법』, pp. 225-66에 발표된 “문학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글을 읽고서 음악사연구에 적용시켜서 시도해 본 것임을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임.

(17) 音聲署…(中略)…大舍二人 眞德王五年置, 『三國史記』, 卷38. 13a 2-5. 필자가 참고한 영인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7년에 펴낸 韓國古典叢書 제 2권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앞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실증작업은 음악사연구에서 초보적인 이해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대기적 성격의 음악사는 악곡을 사실로만 다루고 있을 뿐이고, 음악과 관련된 사상·사회·경제 등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점의 단계를 벗어난 연구방법이 사실과 사실을 비교하여 서로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인데, 비교방법은 곧 역사적 사실의 족보를 만들어 선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곡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 악곡의 상호 비교고찰에 의하여 가곡의 족보를 그려 조선후기 음악사의 한 갈래를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비교방법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로 보면 될 것이다.⁽¹⁸⁾ 족보식 선으로 서로의 관계를 찾아내서 어느 갈래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음악사의 연구방법도 반드시 필요하고 음악사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족보로서의 음악사연구는 음악사 이해에 공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두가지 이상의 갈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두 갈래의 음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한 족보의 선과 다른 족보의 선으로 구성하여 만든 평면으로 음악사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한 시대에 함께 있었던 여러 갈래의 음악들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다고 보면, 모두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 상호관계의 총체가 바로 평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평면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는 음악사연구는 우선 역사적 사실들 사이의 전후관계와 좌우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 연구방법은 선으로 된 족보식의 연구방법보다 한 차원 높은 역사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하겠다.⁽¹⁹⁾ 하나의 평면에서 음악 갈래의 전후관계를 시간축으로 본다면, 중대엽과 삭대엽의 관계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악 갈래의 좌우관계를 음악수용층으로 보아서 연구한다면, 상층음악인 궁중악과 하층음악인 민속악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면적 연구방

(18) 歌曲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족보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拙著『韓國音樂通史』, pp. 414-25에서 제시된 바 있음. 필자는 同書 429~41쪽에서 靈山會相과 步虛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족보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함.

(19) 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高麗 鄉樂의 三絃問題,” 『東洋學』(서울: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86), 第16輯, pp. 307-43의 글에서 新羅 鄉樂의 三絃이 高麗朝廷 밖의 일반사회에서 어떻게 전승되어 발전되었나를 밝혀 보려고 『高麗名賢集』의 음악기사를 분석하여 고찰했는데, 이러한 연구가 어느 면에서 평면적 연구방법에 의한 시도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함. 文人社會에서 연주된 高麗 鄉樂의 三絃은 시간의 전후 관계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新羅의 三絃과 朝鮮時代의 三絃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식될 수 있고, 또 공시적 차원의 좌우 관계라는 견지에서 高麗朝廷의 大樂署와 管絃房에서 연주된 鄉樂의 三絃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법의 한계성은 전후좌우가 모두 수평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평면적 연구방법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연구방법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여러 평면으로 구성된 입체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여섯개의 평면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구조물은 네개의 수직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직축을 곧 공간축으로 이해하면 빠르다. 네개의 수직축을 사회·문화·정치·경제로 보고, 음악과 그 네개의 공간축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음악사를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을 필자가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음악문화이던지 간에 그 당시의 음악인들이 공기만 마시면서 음악만을 위한 음악을 연주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수직축의 이해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음악인들이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복잡한 제도 아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지금의 음악을 한 세기 후에 누가 연구한다면, 필자가 제시한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에 의거해야만이 그는 제대로 오늘의 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의 음악적 실상이란 따지고 보면 오늘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평면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입체로 존재했었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음악사연구는 구조적 연구방법으로 그 음악의 실상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다.⁽²⁰⁾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략 이러하다. 음악사연구의 세 단계가 자료정리·사실고증·이론정립으로 압축되는데, 이 세 단계 중에서 자료정리가 음악사연구의 서론이고, 사실고증이 연구의 본론이 될 수 있지만, 이론정립이 노른자의 씨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음악사연구의 이론정립은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의식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가능하고, 연구방법도 그러한 이론정립에 발 맞추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음악사의 연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으니, 하나는 총체적 접근방법이라는 것이고,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총체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역사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생성된 음악의 역사연구가 음악양식의 변천사연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인문과학

(20) 生動的인 인간의 삶 속에서 生成되었던 한 시대의 음악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과거의 사실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을 당시의 力動的이고 有機體의 역사의 사실로 인식되도록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力動的이고 有機體의 역사인식은 필자가 제시한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함. 본고의 각주 15에서 언급된 『新科學運動』에서 상세하게 논의되었듯이, 時空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한 독일의 물리학자 Albert Einstein(1879~1955)의 相對性이론 및 독일의 현대이론 물리학자 Werner Karl Heisenberg(1901년생)가 微視세계의 力動的 상태를 파헤쳐 不確實性이론을 제시함으로써 量子力學이라는 새로운 現代物理學의 기초를 닦은 새 움직임을 이해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학문적 업적을 음악사연구에 적용시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함.

과 사회과학의 폭 넓은 지식과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이란 음악사의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갈래의 음악 실상이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구조의 시간축과 그 음악문화를 만들어 낸 공간축의 상호관계 속에서 골고루 파헤쳐질 때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5. 맺 는 말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위하여 필자는 세 항목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보았다. 먼저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놓고서 필자는 음악사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렇게 논의하였다. 음악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음악사학이 역사학의 한 갈래임은 분명하지만, 음악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역사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악학의 한 갈래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내어 놓았다. 음악사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음악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건전한 사고 능력과 비판능력을 증진시켜 주며, 미래의 음악문화에 대한 건실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학문임도 확인하였다.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연구목적이 연구방법의 논의에 앞서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둘째 항목에서 연구목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지적되었다. 오늘날 음악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사라는 개설서가 한국민족과 우리 사회의 음악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음악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낳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의 음악교육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첫째 이유라고 하였다. 한국민족음악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음악지성들에게 부과된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두가지 시대적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두번째 이유로 지적하였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난 후의 미래에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정통성을 오늘의 우리가 수립하고 지켜야 할 역사적 과제에서 세번째 이유가 찾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바람직한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정립함으로써, 서구음악문화와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이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당당히 공헌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네번째 이유라는 견해를 내어 놓았다.

세째 항목에서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거론하면서 자료정리·사실고증·

이론정립의 세 단계가 음악사연구에서 필수적이라 하였다. 그 세 단계 가운데 자료정리는 음악사연구의 서론에 불과하고, 사실고증이 본론의 노른자라 하였으나, 음악사연구의 썬은 이론정립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음악사연구의 이론정립은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의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고, 연구방법의 원칙도 그러한 이론정립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국음악사의 연구방법으로 필자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니, 하나는 총체적 접근방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생성된 음악의 역사연구가 음악양식의 변천사 연구에만 머무르는데 그치지 말고 마땅히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폭넓은 지식과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총체적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은 음악사의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갈래의 음악실상 즉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된 음악실상의 기하학적 구조를 시간축과 공간축의 상호관련 아래서 골고루 파헤쳐 드러내도록 연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하고 또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두가지 의문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위에서 요약되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음악의 여러가지 문제가 국악전공자나 양악전공자 모두의 관심사여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로 한국민족음악의 문제가 미국이나 독일음악학자의 학문적인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관심이 곧 한국 사람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음악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의 왜곡된 문화정책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서양음악의 선구자들이 지금의 세대들에게 물려준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적 오점을 현대를 살고 있는 음악담당자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졌을 때, 지금의 음악담당자들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취하여 미래에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정립하여, 그것으로 분단시대의 극복 이후 민족음악사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보는 바이다. (1986. 9. 9)